기초학력 보장 사업 '만족도 높다'

도교육청, 763개교 학부모 · 교사 등 만족도 조사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에 학부모 만족도 가장 높아
교사들, 두드림학교서 만족도 가장 높게 나타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추진한 '2023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대한 학생 · 교사 ·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 26~31일까지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참여한 학교 763곳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에는 학생 3,367명, 교원 2,048명, 학부모 2,498명 등 총 7,9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학습결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무려 초등학부모는 98.3%, 중등은 87.4%로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초등 97.8%, 중등 87.7%로 집계됐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는 두드림 학교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 교원의 96.5%, 중등 교원의 89.9%가 '학교생활 자신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초등 교원 96.4%, 중등 교원 89.2%가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방과후 담임선생님이 학습지원 대상학생에게 지도하는 '교과보충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90%를 웃돌았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교원의 90.4%, 중등 교원의 84.3%가 '학생의 구체적 학습결손요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진단-보정 시스템에 있어 추후 학습 기능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 교사와 학부모 모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맞춤형 자료 제공'과 '학습관리' 꼽았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11~12월 중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4학년도의 사업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올해를 기초학력 책임 원년으로 삼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며 "향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북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8일 전북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도 학교급식 관계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이 실시됐다.

안전한 식재료 급식에 활용 친환경 · 저탄소 식단 확대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3년도 학교급식 관계자 식재료 안전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교장, 유치원장,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 저탄소 식단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교육청 급식담당 정은이 사무관이 '유해물질 없는(6無) 식재료 사용' 등 전북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쌀) 사용(60%) 확대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 사용금지 △비유전자 변형 지역산 원재료 가공품 사용 △합성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 사용 자제 △후쿠시마 · 원전 오염식재료 사용 금지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 등 유해물질 없는(6無) 식재료 사용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어 최일숙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친환경 · 저탄소 학교급식'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최 교수는 △식품속 각종 유해물질의 이해 △기후위기와 식량문제 △친환경 식단을 통한 환경보호 가치 △저탄소 · 친환경 학교급식 사례 등을 안내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잔류농약, 방사능, GMO, 항생제, 합성첨가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영양(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 담당자 연수

도교육청, 막바지 점검 나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안정적인 수능 시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9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학교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시험장 설치 및 운영 전반의 업무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수능 시험장학교 교감 · 교무부장 · 방송담당자 · 수능 시험지구교육지원청 과장 및 장학사 등 총 29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먼저 오전에는 방송시설 준비 및 관리, 방송 운영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한다. 특히 방송담당자 전문 연수는 방송시설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이어 오후에는 시험장 설치 및 운영의 각종 준수사항,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 대책 세부 내용, 상황별 시나리오 등 2024학년도 수능 업무 처리지침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10일에는 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관내 고등학교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수험생 예비소집을 위한 안내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65개 시험장 파견감독관(65명) 대상 연수를 갖고, 파견감독관의 역할 및 수능 운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수능은 오는 16일 도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1만 6,805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국표준협회 시상식에서 안국찬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앞줄 가운데)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대, 학생 서비스 만족도 '5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서비스품질지수평가서 8번째 지방 국립대 1위
밀착형 소통 · 전폭적 지원 · 맘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3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2019년부터 5년 연속이자 모두 8번째다.

이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대학별로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결과 품질과 서비스 상호작용, 서비스 환경, 사회적 품질 등으로 나눠 정확성과 전문성, 진정성, 친절성, 적극성, 이용편리성, 외형성, 사회적 가치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전북대는 서비스 결과와 상호작용, 환경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등 12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북대가 수년 째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립대 절반 수준의 등록금에다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2,100만 원에 이른다. 전북대의 연간 등록금이 4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전북대 학생들은 등록금 대비 5배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오봉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학생들과의 밀착형 소통을 통해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삼겹살데이, 호프데이, 천원의 아침밥, 중간고사 간식나눔 등 학생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에 나선 결과다.

한편, 양오봉 총장 취임 이후 '학생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학과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전학 · 전과 비율 확대, 복수(부) 전공 신청을 위한 성적 기준도 폐지하는 등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대학발전 핵심 전략을 '학생 중심'과 '지역 상생', '글로벌 허브'에 두고 지역발전을 선두에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 누구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새로운 대학문화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탄소융복합재 산업 전문인력양성 '성과'

전북대 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 김미나 · 소순오 대학원생

김미나 대학원생

소순오 대학원생

전북대학교 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 석사과정생들이 탄소복합재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오는 2026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복합재 기술 국산화 · 고도화를 위한 산업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탄소복합재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탄소융복합재료공학과 김미나 · 소순오 석사과정생이 탄소융복합재산업 관련 성과를 거뒀다.

김미나 석사과정생은 SCIE 저널 〈Composites Part A: Applied Science and Manufacturing〉 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 석사과정생은 총 3편의 논문을 SCIE 저널에 게재하고, 최근에는 KCI 논문 1편을 추가 발간하며, 한국복합재료학회 '노초우수학술발표상'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소순오 석사과정생은 사업 지원을 통해 SCIE 저널 〈Mate rials Today Physics Composites Communications, Polymers〉 지에 총 3편의 논문이 실렸다.

오명준 탄소복합재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탄소복합재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은 목표했던 연구 수행,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선순환구조의 본 궤도에 진입했으며, 향후 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성륜 지도교수(유기소재섬유공학과)는 "정부의 지원과 학생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사업 기간을 늘리는 데도 노력해 우수 고급 인재를 충분히 양성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우석대, 호텔관광 분야 채용설명회 개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8일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 호텔관광 분야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광학과와 호텔외식조리학과를 비롯해 관련 분야 학과 재학생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파크하얏트 부산과 신라호텔 제주가 참여해 각 기업을 소개하고, 취업 멘토링과 모집직무 및 자격 안내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신라호텔 제주는 이날 직무별 채용 현장 면접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학생은 "인사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상황을 쉽게 설명해 줘서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수기업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직무와 연계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 창업기업 베트남 수출지원 '박차'

전북대 창업지원단, 호치민서 바이어상담호 열고 10개 기업 해외 진출 모색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도내 창업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베트남 바이어 상담회(Global Intensive Program)'에 참가해 지역 기업인 ㈜메디엔리서치(대표 이서형)와 ㈜엠에스이엔지(대표 서종윤), 더젊은마켓(대표 이영우) 등이 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 간 호치민시 현지에서 열린 상담회는 지난 8월 개최된 '한국-베트남 메가트렌드 박람회(MEGA-US EXHIBITION 2023)'와 연계한 후속 성과 창출과 새로운 바이어 개척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북대 산학협력중점사업단과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전북지역 초기 및 도약기 창업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바이어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출계약 체결과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해외투자 IR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 사업에 선정된 실험실 중 6개 실험실과 전북대 TMC 사업단의 2개 실험실이 참여해 베트남 현지 투자 IR 발표를 진행해 12건의 투자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실험실창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 국내기업 제품 전시관인 '코레투비엣(KORETOVIET)'과 '브랜드-케이(BRAND-K)' 등도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관 입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호치민의 실험실 창업선진대학인 EIU 대학(Eastern International University)을 찾아 현지 기업인 베카맥스(BECAMEX)의 창업보육센터와 공장형 시제품 제작소 등을 견학하는 한편, 호치민 상공회의소(VCCI)와 컨퍼런스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회도 가졌다.

전북대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박람회에서 바이어상담, 수출계약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해외 진출 공식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호치민과의 상호 협업 체계를 잘 활용해 국내 창업기업 및 실험실 창업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사노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 지지"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자인 B교사의 고소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던 B교사가 피해학생에게 2차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는 것.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B교사는 피해학생이 학폭사안 발생장소를 학교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에 각기 다르게 진술, 피해학생의 동의하에 사안 발생 장소를 동행해 사실을 확인, 이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재현시키는 2차 가해를 A학생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피소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B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장소 확인을 위해 피해학생과 동행했음을 설명하고,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재현시킨 정황 역시 없었음을 CCTV 등을 통해 증명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B교사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학부모가 B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진술한 사항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고,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